

새로운 영웅 탄생 예고

KIA 김선빈 vs 두산 민병헌, 한국시리즈 키플레이어

2017년 한국시리즈가 새로운 영웅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다.

KIA 타이거즈와 두산 베어스는 25일 오후 6시30분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2017 타이거뱅크 KBO 포스트시즌 한국시리즈 1차전을 치른다.

정규리그 1위를 차지한 KIA는 일찌감치 한국시리즈에 직행해 휴식과 훈련을 병행했다.

KIA는 2009년 통합 우승 이후 8년 만에 통합 우승에 도전한다.

아쉽게 정규리그 2위를 차지한 두산은 플레이오프에서 NC 다이노스를 물리치고 3년 연속 한국시리즈에 올랐다.

플레이오프 4경기에서 무려 50점이거나 올리는 무서운 화력을 뽐냈다.

이번 한국시리즈는 화력 싸움이 될 가능성이 크다.

KIA(0.302)와 두산(0.294)은 팀타율 1, 2위에 오른 팀이다.

상하위 타순 모두 장타력을 갖춘 선수들이 포진하고 있다.

그러나 두 팀 모두 타선의 파괴력에 비해 투수진의 위력은 떨어진다.

KIA는 20승 원투 펀치 양현종, 헥터 노에시를 보유하고 있지만 리그 최약체급 불펜진이 불안 요소다.

두산이 자랑하는 '판타스틱 4' 더스틴 니퍼트, 장원준, 마이클 보우먼, 유희관은 포스트시즌에서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였다.

때문에 경기 초반 타선의 역할이 중요하다.

선발을 빨리 무너뜨려야 이길 확률이 높아진다.

김선빈은 올해 두산을 상대로 강점을 보인 선수 중 한 명이다.

김선빈은 두산전 16경기에 출전해



KIA 타이거즈 김선빈(사진왼쪽)·두산 베어스 민병헌



0.408(62타수 25안타)의 고타율에 5타점 12득점을 기록했다.

니퍼트를 상대로 12타수 6안타, 장원준을 상대로도 11타수 5안타를 기록했다.

김선빈은 올 시즌 체력 부담으로 인해 대부분 9번 타수에 포진했지만, 두산전 성적도 좋아 한국시리즈에서는 테이블세터로 될 가능성이 크다.

KIA 4번타자 최형우는 니퍼트와 장원준에게 강했다.

니퍼트를 상대로 8타수 4안타(1홈런) 3타점, 장원준을 상대로 10타수 4안타 2타점을 기록했다.

두산 타선에서는 민병헌이 키플레이어다.

민병헌은 올해 KIA전에서 좋은 성적을 올렸다. 16경기에 출전해 0.397의 타율에 2홈런 12타점을 기록했다.

KIA의 원투 펀치 양현종과 헥터를 상대로도 강한 모습을 보였다.

양현종을 상대로 5할 타율(6타수 3안타)을 기록했고, 헥터를 상대로 16타수 5안타(1홈런) 3타점을 올렸다.

플레이오프에서 보여준 타격감도 좋다. 민병헌은 플레이오프 3차전에서 NC 에이스 에릭 헥터를 상대로 결정적인 만루 홈런을 터뜨리면서 두산의 한국시리즈 진출을 이끌었다.

플레이오프에서 6할 타율(15타수 9안타)에 5홈런 12타점으로 맹타를 휘두른 오재일 역시 요주의 인물이다.

오재일은 올해 KIA전에서 3개의 홈런을 날렸다.

두산 박건우는 헥터를 상대로 타율 0.750(12타수 9안타)을 기록해 '천적'의 면모를 과시했다.

/뉴시스

호날두, 2년 연속 FIFA 최고 선수 선정

호날두는 24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팔라디움 극장에서 열린 더 베스트 국제축구연맹(FIFA) 풋볼 어워즈에서 올해의 남자 선수상을 거머쥐었다.

지난해에도 리오넬 메시(FIFA르셀로 나)를 제치고 수상의 영예를 안은 호날두는 2년 연속 왕좌를 지켰다.

FIFA는 2015년까지 프랑스 풋볼과 함께 FIFA-발롱도르라는 이름으로 수상자를 선정했지만 프랑스 풋볼과의 계약이 만료되면서 새로운 이름의 시상식을 탄생시켰다.

호날두는 43.16%의 지지를 받아 19.25%의 메시지를 크게 제쳤다.

두 선수와 함께 최종 후보에 오른

네이마르(파리생제르망)는 6.97%에 그쳤다.

호날두는 지난 시즌 레알 마드리드의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와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우승을 이끌며 높은 지지를 이끌어냈다.

호날두는 "나에게 표를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일년 내내 나를 도와주는 레알 마드리드 서포터, 동료, 팀원, 코치 등에게 고맙다고 고개를 숙였다.

잔투이지 부펜(유벤투스)은 최고의 골키퍼로 이름을 올렸고, 가장 멋진 골을 터뜨린 선수에게 주어지는 푸스카스상은 올리비에 지루가 가져갔다.

/뉴시스



에픽하이, 정규 9집 타이틀 '연애소설·빈차' 음원차트 올킬

3년 만에 정규앨범을 발표한 그룹 '에픽하이'가 '음원 강자'의 명성을 확인하고 있다.

에픽하이가 23일 오후 발표한 정규 9집 '위브 돈 섬싱 원더풀(WE'VE DONE SOMETHING WONDERFUL)'이 24일 오전 8시 현재 음원차트를 휩쓸고 있다.

타이틀곡 '연애소설'과 '빈차'는 멜론, 네이버, 지니, 벅스 소리바다, 올레, 엠넷 등 7개 차트 1, 2위를 석권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니, 벅스, 올레 등에서는 앨범 수록곡들이 상위권

을 모두 휩쓰는 이른바 '올 세우기'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콜롬비아, 홍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페루, 필리핀, 싱가포르, 타이완, 베트남 등 총 10개국 아이튠즈 앨범차트에서도 1위에 올랐다. 에픽하이는 이번 앨범을 통해 연륜과 함께 서정적인 감성이 묻어나는 가사 화려한 피쳐링진들의 조화를 선보였다.

'연애소설'은 이별 후 지우고 싶은 기억들과 추억들로 인해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한 곡이다.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감정을 에픽하이 특유의 감성으로 담아냈다.

/뉴시스

11월 컴백 워너원, 데뷔 뒷이야기 리얼리티 방송

11월 컴백을 앞둔 그룹 '워너원'을 리얼리티 프로그램으로 먼저 만난다.

24일 음악채널 엠넷에 따르면 오는 11월3일부터 이 채널에서 '워너원 고:제로 베이스'가 방송된다.

합숙 리얼리티부터 데뷔 뒷이야기를 담은 워너원의 첫 번째 리얼리티 '워너원 고:이은 프로그램'이다.

전작은 2부작이었던데 이번에는 8부작이 편성됐다. 엠넷은 "확대 편성된 만큼 멤버들의



더 많은 매력과 다양한 에피소드, 활동 비하인드 영상 등 더욱 풍성한 이야기가 그려질 것"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워너원은 11월3일 두 번째 앨범 1-1=0을 발매한다.

/뉴시스

KIA 헥터 vs 두산 니퍼트

내일 한국시리즈 1차전 격돌



KIA 타이거즈 헥터 노에시(사진왼쪽)·두산 베어스 더스틴 니퍼트



KIA 타이거즈의 외국인 선수 헥터 노에시(30)와 두산 베어스의 에이스 더스틴 니퍼트(38)가 한국시리즈 1차전 선발투수로 나선다.

김기태 감독은 25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리는 한국시리즈 1차전 선발투수로 헥터를, 김태형 감독은 니퍼트를 투입한다고 밝혔다.

KIA는 2009년 통합 우승 이후 8년 만에 통합 우승에 도전한다.

헥터는 올해 양현종과 함께 KIA의 선발진을 이끈 투수다.

나란히 20승을 올리며 KIA의 정규리그 1위를 견인했다.

헥터의 성적은 20승5패 평균자책점 3.48, 시속 150km를 넘나드는 빠른 직구와 체인지업, 슬라이더가 주무기다.

올해 두산전 5경기(31이닝)에 등판해 3승1패 평균자책점 4.06을 기록했다.

포스트시즌 경험도 1차례 있다.

/뉴시스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